

시멘트포장 분과 '2010 World of Concrete' 참관기



정진훈 | 정회원 ·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시멘트포장 분과는 2010년 3월 현재 위원장인 강릉대학교 이승우 교수를 주축으로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주요사업의 하나로써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친환경 시멘트포장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외 기술동향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2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10 World of Concrete'를 참관하였다. 우리 분과의 위원장 이승우 교수를 비롯하여 금영토건 이풍희 회장, 중앙대학교 조운호 교수, 한국도로공사 한승환 박사,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 인하대학교 정진훈 교수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를 보려는 많은 국내 학계 및 업계콘크리트 관련 종사자들로 인하여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열기가 대단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시간이 없어 만나기 어려웠던 지인들을 여럿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본 박람회는 토목 및 건축에 사용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재료, 건설, 측정기구 등을 전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하며 각종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매우 큰 규모의 행사로서 197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1,300개 이상의 업체에서 11만² 이상 면적의 실내 및 실외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100개 이상의 콘크리트 관련 주제가 세미나에서 강의되었다. 특히, 금년 박람회는 "Green"을 주제로 하여 전시장 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도 친환경 콘크리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를 생산 및 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실내 전시장인 'North Hall', 'Central Hall', 'South Hall'을 비롯한 야외 전시장에서는 4일 동안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필자에게는 콘크리트 또는 석재에 내구적으로 색깔을 입히는 기술과 최근 시멘트 포장 설계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습도 측정 장비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



사진 1. World of Concrete 박람회장 앞에서

회가 되었다. 5일에 걸쳐 행사기간 내내 열린 세미나에서는 콘크리트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료, 시공, 품질관리 등의 폭넓은 범위의 내용이 각 주제별로 3시간 내지는 90분씩 대학 수준으로 매우 쉽게 강의되고 있었다. 특히 'Greensite'라는 특별 세미나가 마련되어 3일 동안 매일 6개씩 친환경 콘크리트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Decorative Concrete'를 주제로 한 전시회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보강 실습, 가장 혁신적인 제품 대회, 석재 및 콘크리트 품질 대회, 장비 성능 대회, 벽돌 쌓기 대회 등의 풍성한 이벤트가 열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또 하나의 일정으로 네바다주

교통국 1지구(District 1)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할 지구 내 시멘트포장의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주 내의 3개 지구 중 1 지구에 속하며 Interstate Highway인 I-15를 비롯하여 95번 및 93번 국도를 관할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교통국 직원인 로버트 매킨지 씨의 안내로 지구 내의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현황과 교통운영 현황 등을 안내 받았다. 로버트 매킨지 씨는 한글로 번역된 발표자료를 특별히 준비해 주었으나 번역기의 특성상 오류가 너무 많아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는 느낌을 난생 처음 느끼기도 했다. 지구 내의 도로상태가 양호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살펴본 고속도로의 노면상태는 우리나라와



사진 2. World of Concrete 박람회장 실내 전시장



사진 4. 네바다주 교통국 회의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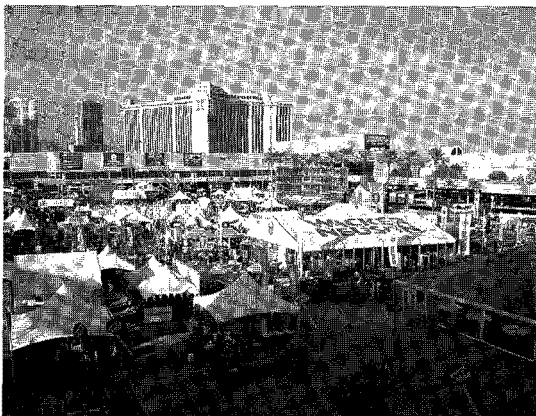


사진 3. World of Concrete 야외 전시장



사진 5. 후버 댐 우회도로에서 건설중인 아치교

비교해 비교적 좋지 않은 상태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교통국의 소개로 찾아간 후버 댐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후버 댐 전면 계곡에 건설되고 있는 아치교는 길이 600m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번 '2010 World of Concrete'를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친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관련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녹색성장

과 친환경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도로포장에서는 외국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느낌이다. 이처럼 멋진 행사를 수 십년에 걸쳐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미국의 저력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고 부러울 따름이었다. 마지막으로 호텔 카지노의 수입 중 일부는 네바다주 도로 예산에 포함된다고 하니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독자 중 일부(?)는 네바다주의 도로를 활개치고 다닐 자격이 충분할 듯 하다.

회원가입안내

본 학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1999. 5. 29)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다음 사업내용으로 건설한 학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널리 회원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취지에 찬동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회하시어 본 학회의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도로공학에 관한 국내의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 도로공학에 관한 조사연구와 성과의 보급
- 도로공학에 관한 자문, 평가 및 교육
- 도로공학에 관한 시방과 기준의 연구
- 학회지 ·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 학술발표회, 세미나의 개최
- 현장견학, 시찰 등의 실시
- 기타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회원의 종류

- 정 회원 : 도로 및 포장공학과 관련된 학문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학생회원 : 도로 및 포장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 참여회원 :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 명예회원 : 대의원회에서 추대한 자

회비

- 입회비 : 20,000원(정회원에 한함)
- 연회비 : ① 정 회원 : 30,000원 / (종신회비 400,000원)
 ② 학생회원 : 15,000원(대학 및 전문대학생에 한함)
 ③ 특별회원 : 특급 : 100만원 이상, 1급 : 50만원 이상
 2급 : 30만원 이상, 도서관회원 : 10만원

입회신청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가입회원명으로 입금) 한국씨티은행 : 102-53510-243 (사)한국도로학회

사무국 : 우)121-706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르네상스타워 1410호

전화 : 02-3727-1992~3 전송 : 02-3272-1994

E-mail : ksre1999@hanmail.net http://www.ksre.or.kr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